

# 소상공인 정책 방향... '보호에서 성장으로' 대전환

## 중소벤처기업부, '2026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개최 AI·디지털 전환 교육...로컬 창업·플랫폼 협업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제도약'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제도전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정책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로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소상공인전담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병권 차관은 '성장'과 '제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제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활용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최대 7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AI 기업과 협업해 2000명의 소상공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문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매출분석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기술을 1만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하고 디지털 커머스 인프라인 '소담스퀘어'를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협업 기반 판로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식품·출판·패션·뷰티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초 컨설팅 3500개 사, 브랜드 육성 700개 사, 브랜드 확산 30개 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가 1000개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로컬 창업

타운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100개 기업·최대 1억원)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정책을 문화·관광과 연계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전국 전통시장은 1400여개, 점포 수는 약 22만개 수준이지만 방문 고객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방문 수요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4월 초 시작되는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이미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중앙 정책 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광주·전남 로컬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 플랫폼 기반 소비 촉진 등으로 현장 매출 회복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 전환 지원과 연계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변 확대 차원에서 창업·소상공인 데이터 기반 정책 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소상공인 매출·신용 등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의 제도전과 위기 대응 지

원 체계도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기존 정책자금 선착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위기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점검·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자기 지원 상담과 채무조정,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폐업 이후 자기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매월 점검할 계획이



'갤럭시 버즈 커스텀 랩'에 마련된 청음 공간에서 '갤럭시 버즈4 시리즈'의 사운드를 체험하는 모습.

## 스티커로 꾸미는 '나만의 갤럭시 버즈'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커스텀 랩' 오픈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자유롭게 꾸미며 수 있는 '갤럭시 버즈 커스텀 랩'을 삼성 강남과 삼성스토어 흥대에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 버즈 커스텀 랩'은 방문객이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포함한 '갤럭시 버즈' 제품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글·영문 이니셜, 도형 등 다양한 스티커를 활용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갤럭시 버즈4 시리즈' 구매 및 보유

고객은 이어버드의 '메탈 블레이드'와 반투명 디자인의 케이스 상단에 스티커를 부착해 보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버즈'를 완성할 수 있다.

'갤럭시 버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문객도 현장에 비치된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본뜬 아크릴 모형을 활용해 꾸미기 체험이 가능하며, 키링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체험 공간은 1020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볼펜, 신발, 텀블러 등 일

상 속 모든 물건을 다양한 스티커와 파츠로 꾸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별다꾸(별걸 다 꾸민다)'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실제 SNS상에도 스티커 등으로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꾸민 콘텐츠가 연일 올라오는 등 '버즈 꾸미기'가 화제다.

'갤럭시 버즈 커스텀 랩'에는 '갤럭시 버즈4 시리즈'의 뛰어난 하이파이(Hi-Fi)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청음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갤럭시 버즈4 시리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설계로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하이파이 사운드로 몰입감 있는 청취 경험을 선사하는 무선 이어폰이다.

장승기 기자 sky@

## 삼성전자 사운드바 12년 연속 글로벌 1위 달성

### 시청 몰입감 극대화 서라운드 음향·편리한 연결성

삼성전자가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21.5%·수량 기준 19.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사운드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운드바는 몰입감을 높이는 서라운드 음향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춰 20년 연속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 TV와 함께 차별이 다른 시청각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전자 TV의 스피커와 호환 사운드 기기까지 모두 연결해 동시에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큐 심포니' 기능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유명 IT 리뷰 매체 'AV포럼'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사운드바 'HW-Q990F'를 "음악과 영화 모두를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사운드바"라고 극찬하며,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또 미국의 유명 리뷰 매체인 '테크에어리스'도 삼성 HW-Q990F를 "뛰어난 삼성 TV와 함께 사용할 최고의 사운드바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제품이다"라고 평가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삼성전자 '가전 원격진단', AI 트러스트 마크 획득

### 국내 최초 취득...한국표준협회 'AI+ 인증'도 받아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 '넵코'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AI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 상담사가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글로벌 인증 기반 '넵코'가 운영하는 AI 트러스트 마크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의 투명성·정확도, 사이버 보안 등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과 안전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의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가전제품 원격진단'은 AI를 통해 가전제품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고장을 선제적으로 관리받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 '가전제품 원격진단'은 한국표준협회의 ISO-IEC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엄격히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AI 모델 성능,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AI 신뢰성 등



품질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 외에도 냉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품목에서 총 17개의 국내 최대 'AI+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문중승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AI 가전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과 신뢰성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Treasure Island NamHae Bike Festival

# 제8회 보물섬 남해 자전거대축전

2026. 4. 12(일) 08시 30분

남해 총력사 외 해안도로 일원

대회안내

**참가대상** 남해군민 및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namhaebike.kr)

**참가금액** 일반 30,000원, 청소년 25,000원

**접수기간** 2026. 2. 25. ~ 2026. 3. 31.

**참가인원** 500명(선착순)

**일반코스(20km)** 남해 총력사 → 진목해안센터(반환)

**전문코스(70km)** 남해 총력사 → 진목해안센터 → 선소마을 → 비저림 → 죽림염호보관(반환)

주최 | 남해군체육회    주관 | 경남일보  
후원 | 남해군, 남해경찰서, 남해교육지원청, 남해소방서, 남해군보건소  
문의 | 055-751-1085

참가자가년품

**청소년부** :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20,000원

**일반부** :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25,000원

·참가자 전원 행사보험 가입, 배번호 제공  
·화전 및 배번호는 행사 당일 배부